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둔화 우려로 KOSPI 급락, 원-달러환율 급등
- 이 슈 : (경제) 주택매매시장 수급분석과 2015년 전망
(산업) 유망 신흥시장(MINTs)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 노후생활

- 테 마 :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노동시장 이행
- 세 심 록 :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 북 리 뷰 : 이카루스 이야기

□ 동향

○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KOSPI 급락, 원-달러환율 급등

-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엔화약세,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락, 3분기 실적 악화 등 금융시장 주변 여건이 악화
 - 미국이 IS세력에 대한 공습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에서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고, 홍콩 민주화 시위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
 -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하락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3Q 실적에 대한 우려감
- 이에 따라 KOSPI가 급락하고, 원-달러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심화
 - KOSPI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2000선 붕괴
 - 원-달러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연동되어 7개월여 만에 1,060원대로 급등

○ 9월 수출 477억 달러, 수입 443억 달러, 무역수지 34억 달러로 32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수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477억달러로 일평균수출액도 22.7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
 - 철강과 일반기계 수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액정디바이스와 컴퓨터 수출 증가
 - 對미국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수출호조로 5개월 만에 증가(6.5%)
- (수입) 전월동월대비 8.0% 증가한 443억달러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증가
 - 원유(유가하락) 수입은 감소, 철강·석유제품(나프타 및 벙커씨유 수요증가)·가스(LNG 가격 상승)·석탄 수입과 반도체 제조용장비, 선박용부품, 자동차 수입증가세 지속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6월	7월	8월	9/12	10/2
실물 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9	0.6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0.1	1.8	0.6	0.3	0.3	4.0	-2.7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4	1.1	1.1	1.6	1.7	1.6	1.4		-
	실업률(%)	3.2	3.1	3.0	2.8	4.0	3.7	3.5	3.4	3.3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151.3	241.3	79	78	73		
금융 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7	2.82	2.75	2.56	2.54	2.50	2.33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69.0	1,029.6	1,019.4	1,019.4	1,025.4	1,020.1	1,043.4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46.1	1,993.2	1,995.1	1,995.1	2,060.9	2,050.3	2,030.5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9/15~10/2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주택매매시장 수급분석과 2015년 전망¹⁾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주택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주택매매시장이 활기를 찾은 가운데, 이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 향후 시장이 어떤 특징(지역·규모별)을 갖고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요-공급-제도측면에서 분석하여, 향후 주택매매가격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수요측 요인) 첫째, 가계의 주택 구매여력이 확대되고 있다. 구매여력을 나타내는 주택구매력 지수(HAI)가 2008년 12월 112.5p에서 2013년 6월 167.1p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향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계한 '집 살 여력 있는 가구'도 2012년 521.8만에서 2013년 568.7만 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구매의사가 개선되고 있다. 내집마련 및 노후대책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의지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대됨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매매 가격비율은 2014년 8월 69.1%로 2009년 1월 52.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최고치가 갱신될 전망이다. 넷째, 가구 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의 추가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공급측 요인) 첫째, 신규주택 공급 물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7월 누적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약 26.5만 세대로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하였다. 주택착공 및 분양실적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재고 물량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미분양주택이 2008년 12월 16.6만호에서 2014년 7월 5.1만호로 크게 축소되었고, 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요인)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로 주택매매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현 부동산 규제는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폐지/완화된 상태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처리 될 경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¹⁾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주택매매시장 수급분석과 2015년 전망” 14-38호 (2014. 09. 26) 재구성.

(전국) 수요와 공급 및 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초과하여 2015년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구매여력과 구매의사가 개선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주택공급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분양 재고 물량이 상당히 해소되어 상승요인이 더욱 강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규모별)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수도권의 전세-매매 가격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구매여력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소형 주택의 상승세가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소형주택의 구매여력이 더욱 크고, 실 구매층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중소형 주택의 매매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 2015년 주택매매시장 수급요인 및 가격전망 >

	분석 분야	전국	규모별		지역별	
			소형	중대형	수도권	비수도권
수요 측면	구매 여력	++	++	+	++	+
	구매 의사	+	+	+	++	+
	전세-매매 전환 조건	+	+	+	++	+
	가계의 주택가격 전망	+			++	+
	가구 수	-	+	-	-	-
공급 측면	신규 공급물량	-	+	-	+	-
	재고 물량	+	+	-	+	+
제도 측면	주요 정책 동향	++				

주 : +는 주택매매시장에 긍정적, ++는 매우 긍정적, -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

■ 시사점

첫째, 최근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등의 후속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하겠다. 넷째,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 이슈 : (산업) 유망 신흥시장 민트(MINTs)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²⁾

민트(MINTs)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나이지리아(Nigeria), 터키(Turkey) 등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4개국을 의미한다. 브릭스(BRICs) 4개국이 각 지역별 최대 규모의 신흥국이라면, 민트(MINTs) 4개국은 각 지역별로 두 번째 규모의 신흥국에 해당한다. 민트 4개국은 약 6.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13년 4.4%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민트 4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트 4개국의 경제적 특징 및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1) 멕시코(Mexico)

(높은 제조업 생산성) 멕시코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제조업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자동차 제조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멕시코의 생산가능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월평균 실질임금(1,722달러, PPP기준)은 OECD 평균(13,050달러)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미-중남미 시장 접근성)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고급시장과 떠오르는 중남미 신흥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한 멕시코는 생산 및 유통 기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육상 및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직접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소비시장) 또한, 멕시코는 소득 수준 증대와 중산층 확대에 따른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멕시코는 신흥 국가들 중에서 부유한 국가에 속하며,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 인도네시아(Indonesia)

(다양한 자연자원) 인도네시아는 지하자원, 농업자원, 관광자원 등 3대 자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주석, 니켈, 금, 보크사이트, 구리 등 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또한 팜오일, 코코아 등 농업자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²⁾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유망 신흥시장 민트(MINTs)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14-34호 (2014. 09. 22.) 재구성.

(대규모 자본 유입)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중점산업을 육성하는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 진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산층 비중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2050년 7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3) 나이지리아(Nigeria)

(에너지자원 강국)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자원 보유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은 경제성장의 최대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원유 생산국인 나이지리아는 앞으로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젊은 인구대국)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세계 7위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망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닛산, GE, P&G 등 글로벌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나이지리아 정부가 경제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면서 건설, 통신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증가하는 주택 및 도로건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건설 부문에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이동통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통신 서비스 산업의 시장잠재력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4) 터키(Turkey)

(지정학적 요충지) 터키는 아시아,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터키를 경유하는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의 중동 국가들과 CIS 소속 국가들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에너지 물류 허브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풍부한 문화자산) 서방 세계와 이슬람, 아시아권을 아우르는 문화자산을 보유한 터키는 역내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슬람, 유럽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빼어난 자연환경, 동로마제국 및 오스만제국의 문화적 유산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소비시장 확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터키는 경제 성장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터키의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급 상품의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민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첫째, 민트 4개국을 각 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남미 시장, 아세안 경제권, 미개척 아프리카 대륙, 중앙아시아 경제권 등에 진출하기 위한 요충지로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민트가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저렴한 노동력 활용과 함께 급증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을 겨냥한 소비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진출 전략 모색을 통해 자원개발 등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신도시 건설 경험 활용 등 신사업 기회를 선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넷째, 경제 및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확대, 국가별 전문인력 양성, 문화 교류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연구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2072-6237, jangws@hri.co.kr)
 안중기 선임연구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 테마 :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노동시장 이행

○ 요약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의 심화 그리고 노인의료비 지출부담과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시장 위축과 노동력부족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장실무경험이 높은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성한다면 노인복지지출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장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

우리나라 퇴직시스템은 은퇴와 함께 소득이 끊기는 절벽 시스템으로 비자발적 은퇴가 이루어질 경우 은퇴후 다시 재진입하는 가교일자리진입의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30% 내외 수준으로 OECD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생계형 취업으로 임금근로자 전체 평균수준의 80%대에 머물고 있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중고령자들 중의 18%만이 상용임금근로자이며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가 72%를 차지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증가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근로자였다가 가교일자리에 상용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비율은 29%, 임시일용직은 36%,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3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임금근로자는 계속 남아있을 확률은 점차 줄어들고 임시일용직으로 이동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노인빈곤의 해결방안으로 노인 일자리창출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들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임금의 열악한 상태로, 노인빈곤의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참여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생애 주된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함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 첫째, 빈곤문제 완화와 노인빈곤층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킴

-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음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그리고 2011년에는 48.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시장의 비활성화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낮은 수준이나, 202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40년 일본(64.7명) 다음으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2012년 건강보험의 고령자 진료비는 16조 38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48조 2,349억원의 33.3%를 차지
 - 2012년 1인당 고령자 진료비는 29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로 경제적 상태가 개선되고 사회활동유지로 심리적·육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노인소득지원과 의료지원에 대한 복지지출을 산업구조 혁신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진입을 달성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노년부양비>



자료: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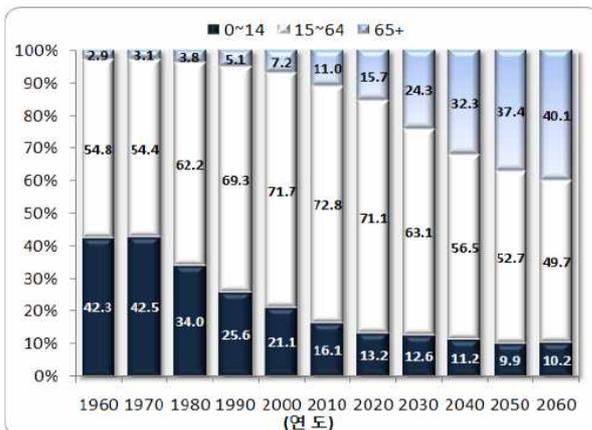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 둘째,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인력부족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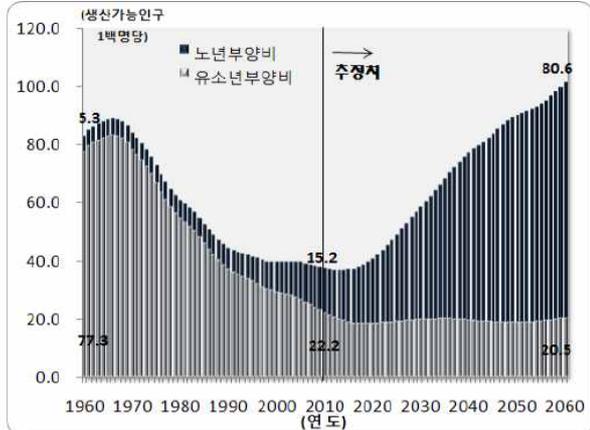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인력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하락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 2,187만명(49.7%)수준으로 줄어들지만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545만명)에 비해, 2030년 2.3배(1,269만명), 2060년 3배(1,762만명)이상 증가함
 - 반면, 고령자들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현장실무경험이 높은 인적자본으로 이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면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율의 하락을 억제할 수 있음

<연령대별 인구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노년, 유소년부양비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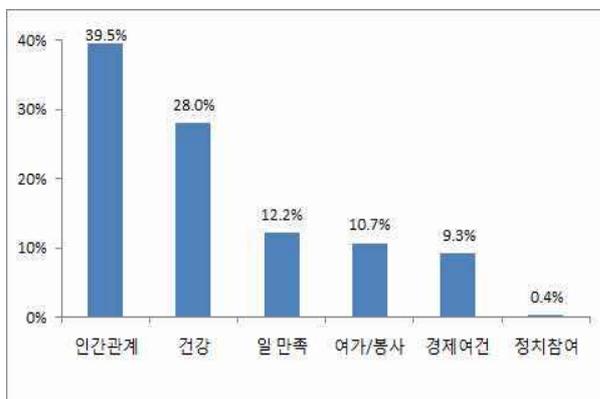
○ 셋째, 근로유지를 통한 소득안정과 인간관계 유지를 통한 행복감 고취

- 현대경제연구소³⁾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인간관계'(39.5%)와 '건강'(28.0%)을 가장 많이 들었고, '경제적 여건'(9.3%)이라는 응답은 예상보다 높지 않았음
 - '인간관계'(39.5%)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오고, '경제적 여건'(9.3%)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음
 -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는 '노후 불안'(20.3%)과 '높은 체감물가'(18.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연령별로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는데, 20대는 '일자리 불안', 30대와 40대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 50대와 60세 이상은 '노후 불안'을 들었음

3) 현대경제연구소, 「여러분 행복하시나요」(2013.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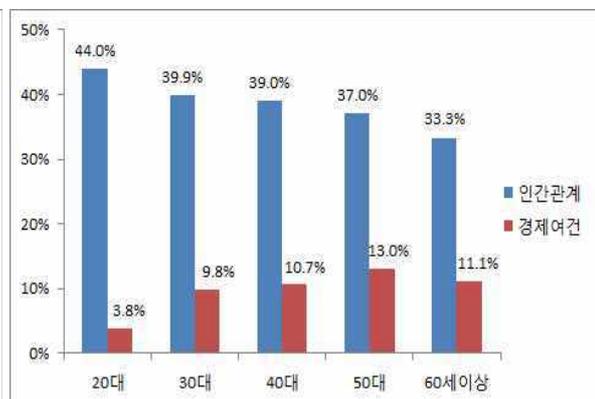
- 취업상태별 삶의 만족도(1: 매우불만족~5: 매우만족)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가 높았음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2012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는 3.3, 비임금근로자는 3.4로 임금근로자의 만족도보다는 비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고, 비취업자는 2.8로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따라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일에 대한 보람과 사회적인 유대감을 유지한다면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한편 인간관계의 유지를 통해 노후의 행복감을 고취시킬 수 있음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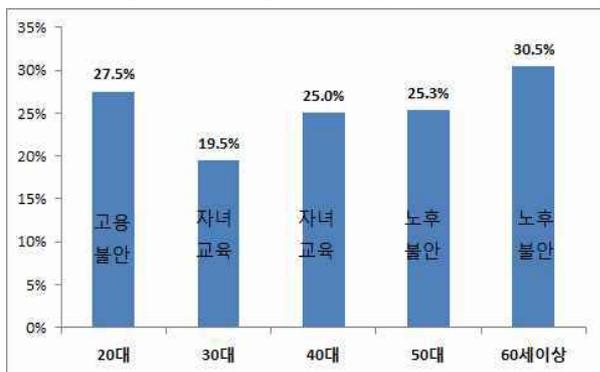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2013.10.14.)

<인간관계/경제여건의 연령별 응답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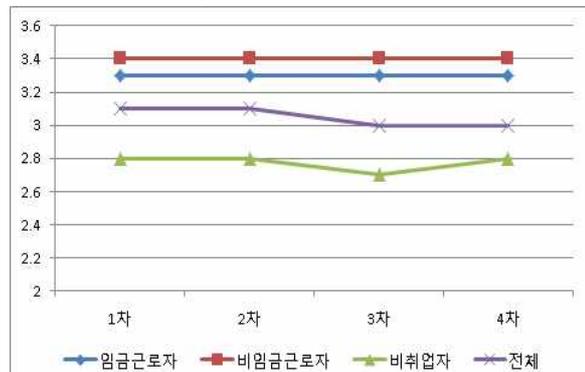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2013.10.14.)

<경제적 고통의 연령별 차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2013.10.14.)

<취업상태별 삶의 만족도>



출처: 권혁창외(2013), 『제4차(2011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고령자의 경제활동 배경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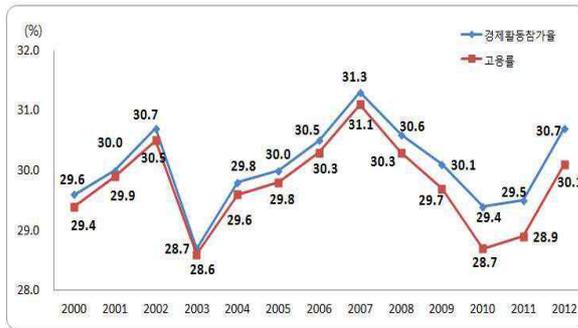
○ 은퇴시스템과 가교일자리

- 우리나라 은퇴시스템은 퇴직과 함께 소득이 끊기는 절벽 시스템으로 노동자가 생애 주기 관점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점보다 빠른 경우가 많음
 - 공식적인 정년퇴직연령은 연구자 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3~56세 정도로 추정
 -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인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의 이행에 따른 위험이 보다 심각한 형태로 다가 올 수 있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사유 뿐만 아니라 생애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월평균 소득수준, 그리고 공적연금가입여부에 따라 노후소득준비에 차이를 발생시켜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하는 소위 가교일자리진입(bridge job)의 가능성을 높임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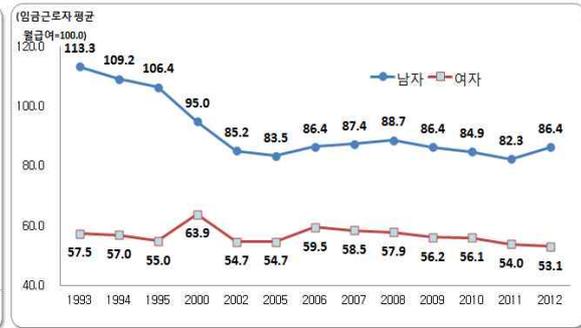
-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03년 28.7%로 가장 낮았던 이래 계속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하락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
 - 우리나라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인한 생계형 취업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령자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고용률이 더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급여를 100.0으로 했을 때, 2012년 현재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급여는 77.7%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86.4%, 여자는 53.1%로 나타나 성별 소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급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던 60세 이상 취업자의 임금수준은 1994년 이후 100.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남자 취업자의 경우는 1997년 이후 100.0이하로 떨어졌으며(1996년 : 101.6% → 1997년 : 98.8%) 2002년 이후 80%대에 머물고 있음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자료: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2013. 9)

<60세이상 취업자의 성별 월급여수준>



자료: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2013. 9)

□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가교일자리종사자의 특성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의 특징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자료에 따르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 중의 18%만이 상용임금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시일용직은 10%,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가 72%를 차지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근로자 그리고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은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상용임금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특히 60~64세에서 급격히 감소
 - 둘째, 임시일용직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줄어들어 60~64세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65~69세에서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
 - 셋째,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는 55~59세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60~64세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는 93%가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가교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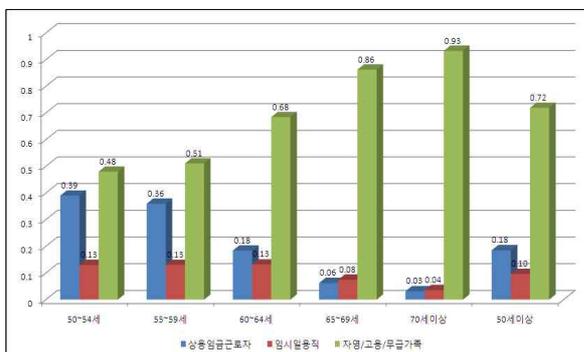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근로자였던 경우 가교일자리에서는 상용임금근로보다 임시일용직과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상용임금근로자였다가 퇴직 후 가교일자리에서도 상용임금근로자인 비율은 29%, 임시일용직은 36%,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한 비율은 35%로, 상용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임금근로자는 계속 남아있을 확률은 점차 줄어들고 임시일용직으로 이동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이었던 중·고령자의 58%는 여전히 임시일용직을 유지하고 있고, 상용임금근로자로 15%,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28%로 이행함**
 - 이러한 높은 임시일용직 유지율은 연령대가 높아져도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나 특히 60~64세 구간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시일용직의 72%가 가교일자리에서도 임시일용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임시일용직을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고용/무급가족에 종사하던 중·고령자들 중에서 59%가 여전히 가교일자리에서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용임금근로자로 12%, 임시일용직으로 29%로 이행함**
 - 전 연령대에서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별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생애 주된 일자의 종사상지위와 빈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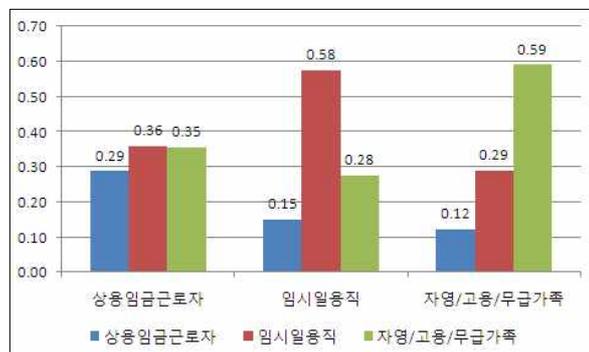
- 상용임금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를 통해 빈곤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기존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일 경우 그리고 상용임금근로자보다 자영/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공적연금가입비율이 낮아 노후소득준비 부족으로 빈곤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생애 주된 일자의 종사상지위>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

<가교일자리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

□ 정책적 시사점

- 노인빈곤의 해결방안으로 노인 일자리창출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들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임금의 열악한 상태로, 노인빈곤의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참여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근로자인 경우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수급시기를 가능한 늦추는 것이 이들이 은퇴 후 다시 새로운 가교일 자리를 찾는 것보다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임
 - 임시일용직과 자영/고영주/무급가족종사자들에 대한 은퇴후 노동시장 재진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의 연령과 학력수준에 적합한 직업교육과 함께 정부와 시장을 통해 안정된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충분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은퇴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영세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공적연금가입의 확대 및 가입기간의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호(02-380-8362, ksud71@khasa.re.kr)

□ 세심록(洗心錄)

○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요즘 드라마에서 '정도전'이 인기다. 정도전에 관한 책들도 서점가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왜 요즘 정도전이 관심을 끌고 있는 걸까? 집권세력의 미움을 사서 귀양과 유배 생활을 거듭했던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 위화도 회군, 과전법 공포, 조선 개국, 한양 천도 등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태조 7년에 이방원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누구에게나 관심을 끌만하다. 역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 역사에 비춰보면 문제의 해법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드라마 제작진은 고려 말 당시의 토지제도 문란과 양극화 심화, 원(元)의 쇠퇴와 명(明)의 부상으로 복잡했던 한반도 주변상황 등이 요즘과 비슷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로 귀양을 가 밑바닥 양민들의 실상을 몸소 체험했다. 10여년의 귀양과 유배 생활 속에서 토지제도 개혁안을 완성하게 된다. 고려 말 당시 지배층의 부패와 양극화로 군대는 오합지졸이었고 왜구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노략질을 해도 제대로 양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이런 시절에 정도전은 권력을 잡고 있던 이인임 등의 친원(親元)정책에 반대하다 귀양을 가게 되었고 오랜 유배생활 끝에 당시 함길도 함주에 있던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이성계를 찾아가게 된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대가 군기가 엄정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군대가 오합지졸이었지만 이성계의 군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다. 전국 각지에 창궐했던 왜구를 소탕했고, 이웃했던 원나라와 명나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했다. 정도전 역시 개국 플랜이 준비되어 있었다. 문란했던 토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역성혁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고, 과전법과 성리학으로 신흥사대부들 역시 새 왕조에 충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써졌던 것이다.

**성공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얻는 데 더 공들이는 것이다.**

- 윌리엄 헤즐릿(1778-1830) : 영국의 작가

□ 북리뷰 : 이카루스 이야기⁴⁾

세스 고딘 터프츠대은에서 컴퓨터 과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스탠포드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마케팅과정 MBA를 취득했다. 컨설팅기업 Squidoo.com의 설립자 및 CEO이고,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 필자, 강연자로 활동하고 이TDMau, 주요 저서로는 <퍼미션 마케팅>, <보랏빛 소가 온다> 등이 있다.

○ 주요 내용

- 이카루스의 속임수

- 그리스 신화에서 건축과 공예의 명인인 다이달로스는 미노스왕의 뜻을 거역한 죄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본인이 제작한 미로에 갇히게 됨
- 다이달로스는 밀랍이 달린 날개를 만들어 이카루스와 함께 미로를 탈출하며 아들에게 밀랍이 녹으니 태양에 가까이 날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이카루스는 본인의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너무 높게 날아올라 바다에 떨어져 죽음
- 이 신화의 교훈은 “자만하지 말라”,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말라” 등으로 겸손을 미덕으로 하는 산업시대에 맞춰짐

-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경제시대를 지나 연결경제시대로 이동 중

- 산업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량생산, 표준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며, 소란을 피우지 말 것, 지도자에게 복종할 것, 힘들어도 인내할 것 등, 태양을 향해 너무 높게 날지 말 것만을 강요
- 그러나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연결경제시대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사람 간의 신뢰를 통해 연결 만들기 등이 중요함
- 우리는 이카루스의 속임수를 넘어서서 태양에 더 가까이, 더 높게 날 수 있도록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함

- 창조적인 아트를 하는 아티스트가 되어 혁신에 도전하자

-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는 신화를 하나의 거울이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며,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해야 함
- 현실에서 신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용기와 통찰력, 창조성과 결단력을 갖춘 아티스트가 되어 위대한 작품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 자신의 약점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실수로 인한 수치심을 극복하며, 산업시대에 중요한 덕목이었던 완벽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작, 도전해야 함

⁴⁾ 세스 고딘(Seth Godin)지음, “이카루스 이야기”, 한국경제신문, 2014.1.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버트랜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